

조락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회견



중국당정대표단을 이끌고 조선을 공식 친선 방문한 중국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가 4월 13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을 만났다. / 신화넷

중국당정대표단을 이끌고 조선을 공식 친선 방문한 중국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가 4월 13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을 만났다. 조락제는 먼저 김정은에게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안부와 당호한 축원을 전달했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습근평 총서기와 중국중앙의 위임을 받아 이번 중국당정대표단이 이번에 조선을 방문하고 '중조 친선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는 조중 관계 발전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친선의 뜻을 잘 보여주었고 조중 관계의 두터운 기초와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했다. 김정은은 습근평 총서기와 중국공산당의 굳건한 지도 아래 중국 사회주의사업이 거둔 발전 성과를 축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중 관계는 깊은 력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비바람을 겪으며 대대로 이어져왔다. 조중 전통적 친선 협조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 량국 관계는 현재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롭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는 조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조 친선의 해'이다. 조선은 중국과 함께 각 령역에서의 협력과 국경순영 경협 교류를 강화하고 전통 친선을 심화해 조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기를 바란다. 대표단이 평양을 떠날 때 조선로동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가 공항까지 배웅했다. / 신화넷

석해 조선 당과 정부의 열정적인 환대를 받았다. 올해는 조중 수교 75주년이다. 우리는 선린우호를 유지하고 어깨 곁고 싸우면서 운명을 같이하고 함께 발전하며 75년을 걸어왔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은 조선과 함께 두 당과 두 나라 최고지도자의 송고한 의지와 량국 인민의 공동 념원에 따라 조중 관계를 더욱 크게 발전시켜나갈 용의가 있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조 친선은 두 당과 두 나라 로세대 혁명가들이 직접 맺고 키워온 것으로 국제 정세의 풍운변화라는 온갖 시련을 견뎌냈다. 이는 우리 공동의 귀중한 자산이다. 중국 당과 정부는 시종 전략적 높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조중 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조중 전통적 친선 협조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두 당과 두 나라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지도하에 량국의 실무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고 상호 힘있는 지원을 계속해 량국의 공동 리

익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 중국은 조선과 긴밀히 협조해 '중조 친선의 해' 행사를 함께 잘 치를 용의가 있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 전략적 배치에 따라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과 발전 면에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량국 협력을 심화해 조중 관계의 합의를 끊임없이 풍부하게 할 용의가 있다. 김정은은 습근평 총서기에게 진심 어린 안부와 축원을 전해줄 것을 조락제에게 당부했다.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습근평 총서기와 중국중앙의 위임을 받아 중국당정대표단이 이번에 조선을 방문하고 '중조 친선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는 조중 관계 발전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친선의 뜻을 잘 보여주었고 조중 관계의 두터운 기초와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했다. 김정은은 습근평 총서기와 중국공산당의 굳건한 지도 아래 중국 사회주의사업이 거둔 발전 성과를 축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중 관계는 깊은 력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비바람을 겪으며 대대로 이어져왔다. 조중 전통적 친선 협조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 량국 관계는 현재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롭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는 조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조 친선의 해'이다. 조선은 중국과 함께 각 령역에서의 협력과 국경순영 경협 교류를 강화하고 전통 친선을 심화해 조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기를 바란다. 대표단이 평양을 떠날 때 조선로동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가 공항까지 배웅했다. / 신화넷

주일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1일 미일 정상회담의 중국 관련 부정적 움직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일본은 중국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고 전략적 호혜 관계의 전면적 추진이라는 중요한 합의를 확실히 리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궁지에 몰아넣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며 중국의 리익을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 중일 관계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10일, 미일 정상은 회담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여러 곳에서 중국 관련 의제가 언급됐다."며 논평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중국의 반복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일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 제멋대로 중국 관련 의제를 다루고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리익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또 군사동맹을 대폭 강화하고 진영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충돌 위험을 높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관련 행동은 중일 4

대 정치문건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에 어긋난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일본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조어도 및 그 부속 도서를 중국의 고유 령토이므로 일본과 미국이 무슨 말을 하든 조어도가 중국에 속한다는 객관적 사실은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므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본은 약속을 지키고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동해와 남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립장과 주장은 충분한 력사적·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남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결을 도발하는 교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일 동맹은 령전의 산물로서 제3자를 겨냥해서는 안되며 제3자의 리익을 해쳐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덧붙였다. / 신화넷

중국, 미·일의 부정적 움직임에 엄정 교섭

대 정치문건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에 어긋난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일본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조어도 및 그 부속 도서를 중국의 고유 령토이므로 일본과 미국이 무슨 말을 하든 조어도가 중국에 속한다는 객관적 사실은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므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본은 약속을 지키고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동해와 남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립장과 주장은 충분한 력사적·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남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결을 도발하는 교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일 동맹은 령전의 산물로서 제3자를 겨냥해서는 안되며 제3자의 리익을 해쳐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덧붙였다. / 신화넷



'푸공주', 우호사절 사명 마치고 귀국



4월 3일 한국 경기도 용인시의 에버랜드, 국민들이 비 속에서 '푸공주'의 귀국을 배웅하고 있다. / 자료사진

한국서 참대곰 열풍 일으켜

한국에서 참대곰 열풍을 일으키며 스타덤에 오른 자이언트 참대곰 '푸바오'(福宝)가 민간 우호사절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마치고 4월 3일 귀국했다. 푸바오는 그간 한국에서 귀엽고 천진爛爛한 모습으로 에버랜드 동물원의 가장 빛나는 스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한 우정의 교량이 되어 량국 국민들에게 무한한 친밀감을 가져다주었다. 푸바오는 한국에 임대된 참대곰 아이바오(爱宝)와 러바오(乐宝)의 사랑의 결실로 2020년 7월 태어났다. 귀엽고 장난기 넘치는 형상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수많은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푸공주'라는 별명도 붙여졌다. 푸바오의 동작 하나, 표정 하나가 모두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는 화제가 됐고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퍼나르는 화제가 됐다. 푸바오가 물을 마시는 영상은 조회수가 300만뷰, 아무 곳이나 벌렁 누워 잠자는 영상도 500만뷰다. 특히 푸바오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던 날 체중을 측정할 때 사육사의 다리를 지긋게 감아안고 장난치는 동영상은 조회수가 1,500만회를 훌쩍 넘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 쇼핑몰, 가게 그 어디서든 푸바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푸바오의 사진이 그려진 의상, 이어폰, 스티커 등은 출시되는 족족 인기리에 판매되고 톱스타들만 받는다는 지하철 '생일광교'도 팬들이 직접 돈을 모아 서울과 경

중국, 한국의 해외관광 목적지 3위로



4월 11일, 유람객들이 장가계국가삼림공원 황석채관광지를 유람하고 있다(무인기 사진). 4월이래 해내외 관광객들이 관광 성수기에 들어선 호남성 장가계국가삼림공원을 찾아 휴가를 보내며 봄기운이 완연한 산림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 신화넷

중국 관광 인기 폭발!

한국 여러 여행사의 최신 수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을 여행하려는 한국 단체관광객이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인기 해외관광지 순위 3위에 올랐다. 중앙텔레비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중국 관광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가장 큰 여행사가 발표한 수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을 목적지로 한 한국 단체관광객은 연인수로 40만명에 달해 작년 4분기보다 12.2% 증가했다. 특히 3월 관

객객수는 2월보다 40% 증가하였다. 한국 여러 여행사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 국민의 해외관광 목적지 인기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올해 2분기 중국 관광 제품도 많은 인기를 누렸다. 중국 관광 수요가 커지면서 각 여행사에서는 장가계, 장백산 등 자연경관 코스를 부단히 완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광 모식을 탐색하였다. 최근 한국의 한 여행사는 등산애호가들에게 난도에 따라 중국 5대 명산도 보 상품을 설계하였고 어떤 여행사는 또 골프애호자들을 대상으로 위해, 정도 등 한국과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중국 도시의 골프 주제 관광 상품을 내놓았다. 이 밖에 한국에서의 참대곰 푸바오(福宝)의 폭발적인 인기를 빌어 4월 초 푸바오가 중국에 귀국한 뒤 한국 여러 여행사에서는 바로 '푸바오와의 상봉' 등 참대곰 주제 여행 패키지(套餐) 상품을 출시했다. 그중 한 여행사는 참대곰 기념품을 제공하고 참대곰 사육사(饲养员) 체험 등 부가서비스까지 내놓았다. 관련 패키지 상품 가격은 3,600원에서 5,700원(한화)까지 다양하다. 중한 인적 왕래가 날로 빈번해지고 한국 국민의 중국 관광 수요가 높아지

면서 한국 항공사들은 중국 항로를 다그쳐 증가하였다. 4월 아시아나항공은 매일 북경, 남경, 항주 등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을 편성했고 여름철에 들어 중국을 목적지로 한 항공편이 매주 117편에 달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저가 항공사들도 중국 항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지방 항공사들은 중국 인기 도시로 가는 항로를 증가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한 항로가 회복되고 항공편이 증가되면 한국 국민의 중국 관광이 더 편리해지고 중국 여행 시장 규모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 중앙인민방송